

일상, 예술이 되다

March, 2018 | 김경주 에디터

page 1 of 4

INTERVIEW



일상, 예술이 되다

매주 일요일, 바이런 김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른 하늘을 그려왔다. 17년이 지난 지금, 일상의 반복은 예술이란 이름으로 완성돼 있었다.

Editor KIM KYEONG JU



국제갤러리 2관(2) 바이런 김 개인전 <Sky> 설치 전경.

약 7년 만의 국내 개인전이다. 매우 의미 있는 전시라고 생각된다. 작가로서 한국을 방문한 건 1994년이다. 1993년에 열린 휘트니 비엔날레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전시 투어의 연장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휘트니 비엔날레가 워낙 붐이라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후론 이번과 같은 뜨거운 반응은 오랜만이다.

전시명이 <Sky>이다. 당신에게 하늘은 어떤 영감을 주나. 하늘은 매우 광활하고 모든 걸 내포한 듯 보이지만, 어디부터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 종교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왜 여기에 있나와 같은 질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에게겐 그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작품 속에는 인류, 문화 등 제법 날카로운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은 매우 서정적이고 은유적이다. 은유와 추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관객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에 오히려 겁을 먹는 이들도 있지만, 스스로 사고방식을 열 수 있길 기대해본다.

표현이 섬세하고 아름답다. 당신의 스타일이라고 봐도 될까. K3관에 전시된 밤하늘 연작을 예로 들어보자. 작품 속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아름다운 밤하늘이 아닌, 도시의 불빛이 스며든 지저분한 회색빛이 가깝다. 하지만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관객이 작품을 '하늘'이란 전체하에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표현했던 <제유법> 또한 대부분 아

바이런 김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특유의 조형 언어와 정교한 개념 사이의 균형을 선보이고 있다. 1999년부터 작업해온 그의 대표작 <Sneedoch> 제유법(사람의 명칭을 직접 쓰지 않고 사람의 일부뿐이나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시작으로 현대인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의 내려지는 방식을 해체하는 시도를 해왔다. 2017년에는 구겐하임 재단 펠로우십의 순수미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름답다 평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피부색을 아름다움과 연결짓지 않지 않나.

앞서 말한 <제유법>은 주변인들의 피부색을 400개의 패널로 담아낸 방식이 흥미로웠다. 문화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당신의 인종적 배경 때문인가. 인종적 정체성은 나의 모든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에서 흑인도 백인도 아닌 나의 위치가 <제유법>을 작업함에 있어 좀 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게 만들었다.

<Sunday Paintings>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일요일의 하늘을 동일한 크기의 소형 캔버스에 그린 작업이다. 일련의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처럼 보인다. <Sunday Paintings>는 작업 방식을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설정한 것이다. 아크릴이나 작은 캔버스를 사용한 것도 빠른 시간 내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려내기 위함이다. 불교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고통이요, 명상은 이를 떨어내는 것이라 말한다. <Sunday Paintings>는 나에게 명상의 역할을 한다.

기자 간담회에서 이 연작을 소개할 때 “한 주를 건너뛰는 날이면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수행과 가깝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긴 했다. 이 연작을 위해 들인 17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떠올리면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 작품 환경에는 그날의 소화에 관한 짧은 글이 담겼다. 시간이 흐른 후 그걸 되짚어봤을 때 문득 ‘이런 일상이 모여 하나의 인생을 관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7년 동안 작업을 건너뛰 횟수가 열다섯 번 미만이라고 했다. 무엇 때문이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9·11테러가 일어난 주였다. 모두가 놀라고 경직된 상태라는 사실을 작품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 후 약 2주간은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일종의 트라우마 같았다. 그 외엔 종종 잊어버린 것이

대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무 상관없어. 내일 해도 돼”라고 말했다.

서정적인 흐름을 따라 전시를 관람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특별히 의도한 바가 있었나. <Sunday Paintings>의 경우 일직선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설치한다. 하늘의 수평선을 연상시킴과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말이다.

영문학을 전공한 이력 때문인지 당신의 작품이 문학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작품을 대변할 수 있는 문학이 있다면, 나의 작품 전반에 영향을 준 문학은 <장자(내편)>이며 그중에서도 데이비드 힌튼의 영역본을 꼽을 수 있다. 최근 피부에 든 명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데, 이는 칼 필립스가 쓴 시 <Alba: Innocence>와 가깝다.

영문학에서 회화로 눈길을 돌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예일대학 영문학 학부 시절 선택과목으로 미술 실기 수업을 들었다. 명작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리는 것이 과제였는데, 교수로부터 혹평을 받고 좌절했었다. 그 후로 오기가 생겨 점점 작업에 매달리게 됐다. 졸업 후에는 스킵히진 아트를 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미술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1 바이런 킴 'Sunday Painting 1/27/08', Acrylic and Pen on Canvas, 35.5×35.5cm, 2008.
2 바이런 킴 'Sunday Painting 12/28/08', Acrylic and Pen on Canvas, 35.5×35.5cm, 2008.



현재 예일대학교에서 미술학부 선임 비평을 맡고 있다. 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 미술 비평가로서 강단에 섰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 선임 비평이 하는 일은 석사생들의 회화 작업을 크리티크해주는 것이다. 즐겁지만 한편으론 고되기도 하다. 하지만 수준 높은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이곳에서 공부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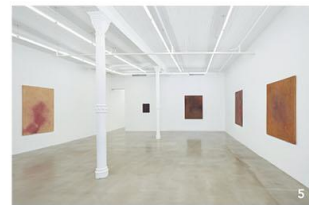
다양한 재료와 매체로 표현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작가도 많다. 그럼에도 꾸준히 회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회화에는 많은 형식적 관행이 있기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작업의 특정 주제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회화는 종종 '종말'과 같은 단어와 언급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해낼 여지가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 나름의 개척할 공간을 찾는 것이 나의 목표다.

올해 예정된 프로젝트나 계획이 있나. 한국과 또한 한 번의 인연을 준비하고 있다. 9월에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 초청받아 회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제작 중에 있다.

만약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예술가를 택할 것인가. 글썸, 그렇다면 영화감독이나 시인이 되고 싶다. ㅠ



4



5

3 국제갤러리 3관(K3)
바이런 킴 개인전 (Sky)
설치 전경.

4 바이런 킴
'Synecdoche', Oil
and Wax on Panel,
10×8inches, 1991~
present. 5 바이런 킴
(Mud Root Ochre Leaf
Star) 설치 전경, 2016.